부활 제2주일 강론(2019년 4월 28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평화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평화.” “평화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한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평화를 빌어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이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평화로운 삶은 우리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참된 평화와 행복. 누구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사람들로부터 평판도 좋고, 아무리 잘 나가도,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게 되면, 그건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평화’는 흔히 ‘어떤 문제나 불상사가 없는 상태’ 또는 ‘곤경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삶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주변에서 나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나는 좀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상황이 늘 평화롭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등지고 혼자 조용히 살면 평화가 저절로 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도,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 많이 한다고, 무조건 하느님 믿는다고 내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삶의 문제들이 다 없어지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지, 우리 삶의 문제들을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신거죠.

 어떤 것이 낫습니까? 삶의 문제들을 혼자 끙끙 앓으면서 짊어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고 가시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누가 나 대신 내 인생을 살아줍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줍니까? 영원히 변치 않겠다고 말은 하지만, 다 거짓말이죠. 시간 지나면 다 변하는 것이 인간들의 ‘사랑’입니다. 결혼 전에는 온갖 정성 다 쏟다가, 결혼만 해 보세요. 완전 딴 사람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도, 우리 주님 만은 절대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평화!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세 번씩이나 우리들의 평화를 빌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바라셨던 것은 바로 우리들의 행복이었고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들은 행복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평화롭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문이 모두 잠겨 있는데도 방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던 것은 제자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암시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죄의식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꼭꼭 숨어지냅니다. 집의 문만 아니라 마음의 문도 모두 닫고 캄캄한 방안에서 숨어서 지냅니다. 어둠과 절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두려움과 후회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이제 희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다는 것은 이런 당시의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설령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어도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토마스가 대표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직접 그 분을 뵙고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그 분 옆구리에 난 상처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인간적이고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토마스입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도 비슷할 겁니다. 분명 그 죽음을 목격했고 무덤에 안치를 했는데, 살아있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직접 봐야 믿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토마스의 이런 태도는 그 당시의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두려운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을 뿐더러,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스승이 허무하게 죽고 나니까 이제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삶에 절망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 첫 말씀은 평화의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세번씩이나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거듭 거듭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평화의 의미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 평화는 온갖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평화였습니다. 이 평화는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어리둥절해 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평화였지요. 그리고 이 평화는 의심을 품고 있는 토마스를 비롯한 제자들이 의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평화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참된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에 대한 약속은 그 때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가지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듯이, 지금 우리들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어 하는 우리들을 위해, 그리고 평화를 잃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부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을 주십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받을지 말지 그 결정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